

국제자유도시와 인문학적 기반 조성

현길언*

1. 문 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이제 제주도는 이름 그대로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 노정에 들어서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 또는 여러 번의 공청회를 통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문제, 즉 도시의 주체의 문제, 그 주체의 역할, 인류가 꿈꾸는 미래 도시의 성격, 관광에 대한 인간주의적 인식, 국제도시 자유도시의 이념적 성격에 대한 문제 등, 근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데 미흡했다. 더구나 국제자유도시 발상은 도시의 주체자의 필요성에 의한 자발적인 발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집권자의 정치 논리에 의해 발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 현실과 그를 뒷받침하는 권력구도, 그것은 실현하는 정치 세력에 의해 모든 문제가 결정되고 시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서, 그 추진 과정에서 새로운 시도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작은 소망으로 이 발표를 하게 되었다. 즉 이 도시를 건설하는데 인문학적 기반을 구축해 달라는 간청을 하려는 것이다. 왜냐면, 지금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이 도시는 <유령의 도시>가 될 것이 확실하며, 그것은 우리가 후대에 물려줄 가장 추악한 유산이 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한국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전략형 도시 건설이나 개발에 있어서의 고정 관념에 대해 인문학도로서 관심을 표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또는 살아야 할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그 계획을 발의한 세력에 의해 선정된 전문 도시 계획가, 건

* 한양대

축전문가, 기능적 행정관료 등이다. 사실 그들은 계획을 세워 도시를 만든 다음에 그 도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의 과오는 그 도시에 살아야 할 사람들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이 모순된 현실이 한국의 전략형 도시 개발에 반복되고 있다. 그러한 점은, 한 도시공학 학자의 술회에서 나타나 있다. 도시는 사람이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사람이 지배하는 것이 원칙인데, 한국의 도시는 정부가 만들어내었으니 정부지배가 될 수밖에 없고, 도지사가 만들어내었으니, 도지사가 지배할 수밖에 없다 (강병기, 63-64)고 했다. 이 논의는 우선 도시 계획은 그 도시에 살 사람에게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것은 인문학적 기반의 핵심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¹⁾

이 발표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형은 제주도가 간행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및 특별법>이란 유인물에 의하였다.²⁾ ‘인문학적 기반’이라는 개념은 그 도시에는 인간이 산다는 전제에서 다소 추상적인 ‘인간의 문제’라는 개념으로 한정한다. 즉 인간에 대한 배려가 도시 건설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제주도시는 제주사람만이 살아갈 도시가 아니라, 기본계획에서 제시했듯이, ‘세계의 도시’로서의 21세기형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도 ‘세계사람’, 즉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도시의 정신에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두 입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국제’와 ‘자유’라는 공간적 법률적 개념을 ‘세계’와 ‘자유’라는 인류가 추구하는 아름다운 가치의 개념 즉 인문학적 개념으로 바꾸는데서 가능하다. 이 논의는 전적으로 이러한 문제의 범위 안에서, 인문학적 개념은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도시, 도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문화의 도시, 세계시민의 도시, 사람이 자유롭게 극히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라는 소박한 범위를 설정한다.

자본주의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적 성격은 ‘기능’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일을 목적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열심히 소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

- 1) 세 번째는 극히 개인적인 이유이다. 발표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개인적으로 약간 비겁하긴 하지만) 알리바이를 남기고 싶다. 이 엄청난 과오 앞에 당신은 무엇을 했느냐는 책망에 대해 작은 변명거리를 남기기 위해서이다.
- 2) 제주도가 간행한 이 자료의 명칭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 및 특별법”인데(2002년 1월 간행) 총 121페이지의 이 유인물은 표제와 같이 기본계획과 특별법으로 짜여져 있다.(38쪽까지는 기본 계획이 수록되어 있음)

다.(프롬/이규호, 303-304.)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 이것은 어느 국가 어느 지역 사람들이 공통된 욕구이다. 그런데 사람답게 산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나 통치자의 입장에서는 물량주의적 관점에서만 생각해 왔고 또한 정책 수행의 한 과정으로 전략적 의미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전략적으로 새도시 개발을 추진해 왔다.

한국정부는 막강한 권력을 힘(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 도시 개발 문제까지 직접 간여하여 추진해 왔다. 더구나 그러한 중앙정부의 의도는 그 지역의 경제 정치 논리와 야합해서, 지방정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무슨 시혜처럼 생각하고 전략형 도시 건설을 즐겁게 수용해 왔다. 그것은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 땅값이 오르고, 도시가 형성되어서 세수가 증대되고, 주거 환경이 발달로 인한 문명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발상도 제주사람에 의해서 발의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제주도건설종합계획'도 중앙정부의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되었고, 그 동안에 여러 차례 걸쳐 시도되었던 '국제자유도시' 개발 계획이 소위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구체화되어 이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법률과 제도를 갖추고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상의 배경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나라가 부강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경제를 신장시키는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도시 건설에서 '사람 사는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데 있다.

지난 11월 14일에 통과한 경제자유구역법도 (1) 특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생활여건 보장 (2) 외국인 기업활동 보장 (3) 기업종사자 생활 편이를 위한 법적 장치에 그친 감이 없지 않았다. 즉 외국인의 자본을 유치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구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벌면 국내적으로 고용이 창출되고, 세수가 증대되고, 그러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특구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생활편이를 마련해주는 수준의 법률이다. 경제특구만이 아니라, 산업 전략적 신도시 경우에도, 질적으로 높은 생활을 유지하여 사람 사는 도시 공간으로 만드는 계획은 고작 교통과 교육시설 그리고 문화 종교 시설을 위한 부지 마련 정도로 그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적 정신적 기반을 조성하는 일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정부 주도로 추진해온 전략적 도시의 실상이다. 제주의 그 이름은 ‘국제자유도시’라고 했지만 실상은 특구적 도시에 불과하다. 그것은 철저하게 경제논리에 의해 건설되는 도시 사람 문제와는 무관한 도시이다.

이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 계획과 그것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이 계획으로는 이 도시가 진정 국제도시, 자유도시가 될 수 없다. 또한 건설된 이 도시에 살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불쌍한 허수아비 문명인’으로 추락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건설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습은 어떤가?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모형

1)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전략

1-1 내. 외국인이 선호하는 환경 친화적 관광. 휴양도시로 개발--관광시설확충, 관광수요창출. 관광 비용인하

1-2 비즈니스.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 복합기능도시로 발전--국내외투자유치. 첨단지식산업육성. 물류. 금융 활성화

1-3 제주도민의 소득향상과 국제화의 선도기능 함양--도민고용촉진. 도민 소득향상. 국제화능력 함양.

위와 같은3대 전략을 통해서 <제주도를 사람. 상품.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복지를 향상>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2) 국제자유도시개발 계획의 기본 방향:

2-1. 제도개선과 투자환경조성--외국인 출입국 관리제도 개선

- (1)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 (2)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특례

- (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도 도입 (4) 영어서비스 및 영어교육 강화
- (5) 금융, 물류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6) 국제화교육 환경 조성

2-2. 내·외국인 관광 유인 시책의 강화

- (1) <내국인 면세 쇼핑 제도> 도입 (2) 골프장 건설확대 및 입장료 인하
- (3) 저 비용 관광을 위한 노력 강화

2-3. 7대 선도프로젝트 추진

- (1)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2) 중문관광단지 확충
- (3) 서귀포 관광 미항 개발 (4)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 (5)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6) 쇼핑아울렛 개발
- (7) 생태, 신화, 역사공원 조성

2-4. 사회 간접 시설 확충

- (1) 공항시설 확충 (2) 항만시설 확충 (3) 도로시설 확충
- (4) 정보통신망 구축 확대 (5) 전력 공급 능력 확충
- (6) 용수공급 원활화 (7) 하수도처리능력 향상

2-5. 제주도민 소득 향상 및 환경보전 대책

- (1) 제주도민 소득 향상 및 1차산업 경쟁력 강화 (2) 환경 보전 강화

이 계획은 도시의 성격과 그 추진 방향이 정제논리에 치우쳐 있다. 즉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그들의 경제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법적 조치와, 경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와 각종 산업 시설을 확충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에 사람들의 질적 삶의 문제는 별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물론, 환경 보전대책과 생태 신화 역사 공원 조성 같은 내용이 포함되긴 하였지만, 그것까지도 정제논리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주기 위한 경제 창출 요소라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배려에서 출발한 문제가 아니다. 이처

럼 인간 문제가 고려되지 않은 기본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이 도시는 '허수아비 문명인인' 사는 도시가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아세아 지역 국제화 도시의 개발 전략

이제 국제자유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 모형이 되었던 다른 지역의 국제화도시에서 인문학적 기반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도시를 논의할 때 사람들은 흔히 홍콩과 싱가포르를 예로 든다. 제주도도 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아세아 여러 지역의 국제화도시의 실태를 파악했다.³⁾ 이 들 지역에 대한 조사 대상은 싱가포르와 북해도, 오키나와, 海南省 4개 도시이다. 이 도시 건설에서 인문학적 기반의 예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싱가포르:** 다민족사회를 하나의 국가로 통합하는 문제와 이미 국제화된 사회구조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해 왔는데, 그것은 다양성 속의 통합정책(Unity in Diversity)이다. 그들의 목표 전략 중에 제일은 인간개발, 삶의 질, 국제화 등 세 가지 장기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창조적사회 (Creative society)로 발전하는 것이었다.(용역보고서,137-9) 여기에서 '창조하는 사회'란 모든 시민이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과 삶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의미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서 이룩한 싱가포르 도시는 인류 문명사에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새무얼 헌팅턴은 싱가포르 국민이 공유하는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 공동체에 우선하는 국가, 개인에 우선하는 사회 (2) 사회의 근본단위로서의 가정 (3) 개인에 대한 배려와 공동체 지원 (4) 대결보다는 합의 (5) 인종간 종교간 화합 (새무얼 헌팅턴, 439)

3) 제주도는 1995년에 <환태평양시대 제주도의 세계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제주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 도정 시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학술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본인은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일부 이 글에 인용한다. 앞으로 인용 출처는 '용역보고서'로 처리할 것이다.

2) 북해도: 삿포르시의 경우에도 국제화의 의미를 ‘개척정신의 계승’에 두고 그것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국제화 세계화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인식은 국제화 세계화의 의지로 그들의 시민 현장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1) 열심히 일하여 풍요로운 도시를 만든다. (2) 하늘도 길고 나무도 물도 깨끗하게 보존한다. (3) 법을 잘 지키며, 우리 도시를 모두에게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4) 우리 도시를 미래를 건설해 나갈 어린이들을 위하여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5) 세계인들과의 문화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문화수준을 높여 나간다.

이러한 현장의 내용만이 아니라, 국제화 목표에서도, 그 지역 특유의 예술과 문화를 창조함으로 인간 교류망을 확충하며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시민의 국제성을 함양하는데 있다. 이러한 삿포르 국제화의 목표는 그곳의 자연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내부사회의 개발과 국제교류의 증대에 있다. 이러한 계획도 그 도시의 주체를 사람으로 인식하고 사람 중심으로 개발함으로 시민 문화를 이룩하고 그것을 통해서 국제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용역보고서 140-143).

3) 오끼나와: 이 지역도 가장 최근 <제3차 오끼나와 진흥개발계획>에 의하면 ‘세계에 열린 개성이 풍부하고 문화향기가 높은 지역사회의 형성을 지향하고, 평화롭고 활력이 가득찬 오끼나와 현을 실현한다.’로 되어 있다. (용역보고서, 144-145) 이 계획은 결국 사람 중심으로 문화를 개발하여 그 결과 사람이 사는데 평화롭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지역의 국제도시는 사람 중심으로 개발하여 사람을 위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도시가 모든 세계도시(Global city)가 된다는 것이다.

4.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인문학적 기반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인문학적 기반은 세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인식의 기반인데, 그것은 도시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이다. 둘째는 도시 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통해서 문화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고, 셋째는 관광지로 성장해야 할 제주의 입장에서 ‘관광’에 대한 인문학적인 인식을 확립하는 것이다.

4-1. 세계사람의 도시: 사람을 위해,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도시.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인문학적 인식의 기반은 건설하려는 ‘국제자유도시’라는 이름에 맞는 개념을 도입하는 일이 필요하다. 형식적으로 이 도시의 성격은 ‘도시’를 한정하는 ‘국제’와 ‘자유’의 개념을 통해 생각할 수 있다. 이 개념은 고상하고 인간적인데, 계획에서 두 개념은 공간적이고 법률적 한계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고착된 개념을 인문학적인 개념으로 바꾸는 것은 인식의 변화이다. 즉 ‘국제’는 모든 국가와 지역 집단간의 ‘장벽을 허문다’는 ‘세계화’와의 개념으로, 인류가 추구해온 조화와 화해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유’는 비단 출입국 상의 문제에 한하지 않고, 진정으로 살아가는데 자유스럽고, 생각하는데 자유스럽고, 자유를 무한하게 꿈꿀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제주는 자연 풍광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런데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도시의 모습은 살풍경하고 삭막한 욕망의 도시이다.

‘국제’라는 혹은 ‘세계’라는 개념의 핵심에는 인간의 원초적인 동질성은 보편문명(universal civilization)(V.S Naipaul의 말처럼)의 기본 요소가 된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인 제도와 윤리감각을 갖고 있다. 전 인류에게 공통된 문명, 원시사회와 야만사회와는 구별되면서 서구문명이 대다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전제, 가치관, 원리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새무얼 헌팅턴, 70-71) 그것에 근거하여 건설된 도시라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테오도르는, 사람들은 이제 더 깊고 먼 곳에서 자신들의 뿌리를 찾기 시작했다.--우리는 전 세계, 전 역사에 걸쳐 우리의 조상을 자기고 있다고 했다(테오도르, 70). 이것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가치를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으로 다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어 도시 건설의 기반으로 삼으면 그 도시는 ‘세계인의 도시’가 된다는 것이다.

‘자유’를 사람 위주의 개념으로 전환한다면, 우선 도시는 국제적이 되기 전에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존재해야 한다. 도시는 사람 사는 공간이고, 그 사람들은 누구나 사람답게 살기는 소원한다. 법을 제정하고 이 일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그 점을 간과해버렸다. 한국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다. 단적으로 사람은 어떤 때에 행복하겠는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위정자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혹 '덜 배고픈 소리'라고 웃을 지 모르지만, 설사 우매한 시민들은 돈을 위해 산다고 하더라도, 한 국가의 지도자, 한 지역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력을 신장시키는 일이다.

도시의 문화도 사람의 문화가 되어야 하고, 문명을 지향하는 문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문화는 사람들 생활이 투영된다. 한국의 도시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 한복판에 나오면 낯설어 외국에 온 기분이다. 그 도시는 그 도시를 지배하는 강력한 이데올로기의 주체자인 소수의 도시일 뿐이다.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그렇게 될 개연성이 너무나 많다. 도시 계획을 전공한 건축학자인 교수는 일본 도시계획의 장점을 과장 중시, 숙성을 위한 시간, 점진적 집행, 제도나 조직보다 사람을 중요시했다고 술회하고 있다(강,92-98). 즉 이용자 위주 시민 위주의 계획과 설계가 우리에게겐 아쉽다는 것인데, 이미 10년 전에 쓴 이 글이 제주국제자유도시 계획에서도 유효하게 생각된다.

그렇다면 자유의 도시의 모형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연과 인간의 합일된 도시를 의미한다. 자연과 사람이 합일되었다면 사람들이 모두 원시인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자연친화라는 개념을 한정적으로 생각해서 '자연회귀'나 원시 지향적 삶, 고답적이고 전통 회귀적인 보수주의자로 생각한다. 그러나 따지자면, 개발논자나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는 경제논리와 가짜 문명론자들일수록 20세기 자본주의 논리에 헤어나지 못한 수구주의자들이다.

제주는 한라산과 태평양 바다가 서로 손을 잡고 있는 특이한 지역이다. 대립되는 것끼리 조화를 이루어 서로 화해하는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는 예이다. 제주를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한라산과 태평양이 어울려 아름다움을 만들어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화해의 문화, 조화의 문화는 오늘의 도시 건설의 기본적인 이념과 가치가 되어야 한다. 왜냐면, 제주도시는 이 자연적인 조건을 거부할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시 개발의 원리나 가치는 여기에 근거해야 한다. 이것은 다층적인 것을 아우르게 하는 힘과 합리적 사유를 통해서 실질적 삶을 추구하는 문화의 원천이 된다.(현길언, 142-144)

이러한 미적 가치의 구체적인 실현은 이 도시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다. 그것은 정치나 경제논리를 넘어서 주민 참여의 공생의 논리를 확보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도시를 건설하는 강력한 힘이 생산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나 받고 외국인의 호주머니에 의지해서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든다는 발상 자체는 너무 유치하다. 도시를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관료가 일부 소수 이익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도 무섭다. 도민이 합의로 이루어내는 저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모든 계층이 참여하고 주도하고 실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일차산업 종사자도, 정치가도, 상공인도, 종교인도, 학생도, 노인도 참여하는 도시에서 다양성의 조화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외지인도 제주토박이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앞으로 살아갈 사람도, 영주할 사람과 일시 거쳐가는 사람이 함께 만드는 도시, 그것이 제주의 문화전통과 자연의 정신과 일치한다.

자연과 사람은 이원적으로 인식할 때는 지났다. 자연은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물질이 아니라, 인간과 꼭 같은 생명체이다. 사람들은 자연을 통해서 인간과 신과 애매한 자신을 생각한다. 이것은 동양적인 사유가 아니라, 인류가 공유하는 보편적 사유체계이다. 한 경제지리학자에 따르면, 심층생태학의 패러다임은 윤리적 사회적 정신적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연과 사회경제적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철학적 태도를 종합하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이렇게 심층생태학의 관점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모든 자연물은 고유의 가치가 있으며 생물계의 동등성을 전제로 한다(박, 115)고 했다. 그 한 예로서 덴마크의 산업 환경정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는 산업, 환경그룹,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을 포괄한 대화 메카니즘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고 한다. 결과는 환경집단과 산업집단 간의 대립이 상대적으로 덜하며, 국가환경정책 결정에서 정치적 긴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한다(박, 523).

4-2. 제주사람들의 문화의 세계성과 자유성: 들꽃의 문화와 세계화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는 제주사람들의 문화가 꽃피워져야 한다. 문화는 자연처럼 세계인의 공통의 언어이고 몸짓이고 정신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없는 도시는 유령의 도시이다. 그 도시에는 아무리 안락한 휴식공간과 편이 시설과 쾌락의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편안한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없다. 라스베가스는 치안이 잘 유지되었고, 편이 오락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나, 관광객들은 거기에서 문화적인 일체감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그 지역이 철저하게 경제논리, 지배논리, 욕망 논리로 건설된 도시이기 때문이다.

아세아 여러 나라의 국제도시에서 보듯이 그 도시가 추구하는 것은 그 지역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낸 문화이다. 그것은 가치의 차원이 아니라, 그 도시가 그 도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화 문제도 그것이 단순히 관광객의 호주머니를 노린 전시용이 되어서는 의미가 없다. 그것은 문화가 아니다. 계획에서도 문화에 대한 사항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모두 관광객을 위한 문화라는 점을 배제할 수 없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소규모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 모든 인류의 공유물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광객을 위한 전시 문화나 공연 문화는 참 문화가 아니다. 그것은 상품화되거나 소수집단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한 제주인의 삶은 들꽃의 아름다움에 비견될 수 있다. 제주의 산야에 핀 들꽃은 제주에만 피는 꽃이지만 모든 세계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 들꽃은 자신을 뽐내기 위해 치장하지 않았다. 산야에서 자연적으로 싹이 터서 자라서 때가 되어 꽃이 피었을 뿐이다. 그러한 자연성은 인류의 심성에 자리잡혀 있는 공통적인 세계성으로 문화의 세계성과 통한다.

제주문화는 우리에게만 소중한지만 그것을 억지로 자랑하려고 할 때에 문제가 생긴다. 문화는 우열이 없다. 다만 그것을 이루어낸 치열성과 진정성만이 있을 뿐이다. 그 치열성과 진정성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제주의 문화가 좀더 구체적인 문제에서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갖추려면, 제주문화에 대한 근본적인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오늘의 제주사람들의 삶가운데 심어놓을 수 있는 실천적인 일들이 필요하다.

우선 제주에 있는 많은 구비전승과 현대문학 작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의 제주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를 논의하는 풍토가 아쉽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전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다. 문화 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라는 인식은 세계도시를 가꾸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 예는 삿빔로와 오끼나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끼나와 문화의 특징은 그들의 역사에 대한 정직한 인식이다.

각 지역마다 체육관도 필요하지만 도서관과 작은 민속전시관들이 잘 운영되어야 한다. 그것은 관광객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도서관이나 마을 회관을 크게 지어 놓았지만 그곳에 비치된 도서는 없다. 지역 미술관만 해도, 미술관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것이다. 마을 회관에는 그 마을의 역사가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마을지는 물론이요, 지난날의 마을 지도도 그리고, 그 지도에 예전에 살다가 외지로 간 사람들 집의 위치며 그들의 소식도 남겨놓고, 훗날에 없어질 마을 모습을 담아놓는 일이 필요하다. 옛것이 오늘을 만들어내었다는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소중하다. 그러한 생각은 오늘은 오늘에 그치지 않고 내일을 만들어낸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다음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제주문화의 특징에 비추어, 제주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문적 요소들-종교 단체, 시민단체, 학술 단체 및 소그룹-을 종합하여 횡적 종적인 유대 관계를 맺고 의도적인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분위기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인문 예술 활동에 대한 일들은 극히 지엽적이고 방법론적인 사안이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4-3.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모는 세계 도시의 원천이다.

기본계획서에도 관광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광에 대한 개념이다. 21세기 관광은 구경하고 즐기는 관광이 아니다. 21세기 사람들에게 소비의 대상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되고 있

다(Theodore Zeldin, 371) 제주가 그들에게 안식처로서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을 편안하게 할수 있을까. 21세기 사람들은 생활현장에서 피곤하다. 사람과 경쟁해야 했고, 일에 지쳤다. 그들은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 사람의 얼굴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자연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잠시라도 세상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의 국민이 되는데(Theodore Zeldin, 374), 그렇게 만든 것은 자연이다. 왜냐면 여행자들은 자신들의 예상이나 편견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볼 줄 알았고, 여행이 삶을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 알았기 때문이다. (Theodore Zeldin, 380)

흔히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라는 말을 한다. 사실 개발은 환경친화적이 될 수 없다. 개발의 의도는 인간의 욕망의 산물이고 그것은 반 자연적이기 때문이다. 보존과 개발이 논리는 양가적인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논리의 허구를 통해서 개발을 합리화했다. 우선 한라산을 가리는 고층아파트, 기계(자동차)를 위한 넓은 도로, 인구에 비해 높은 도로 비율이 치적으로 생각하는 무지, 바다를 오염시키는 각종 건물의 횡포, 경관이 좋은 곳에 건물을 지어 그 자연을 독점하려는 욕심, 이러한 것들은 펼쳐버리기 전에 국제자유도시는 불가능하다. 탐동 매립의 어리석음을 제주를 가꾸는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은 세계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이 할 것이 아니다. 홍콩 사람의 지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은 고층 아파트를 지어도 자연과 호응되게 지었다. 항구의 문화회관은 사람이 지은 건물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다. 제주의 자연미의 핵심은 해안선과 한라산과 오름의 능선의 미에 있다. 그것은 생활에서 초가지붕이고 모든 가구에서 선의 미를 창출해내었다. 그것이 오늘날 모든 건축 양식에서 모두 무너져 버렸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문화적 전통 위에서 제주도를 하나의 자연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한 자연도시는 최상의 윤리적 가치를 창출해낸다. 야훼가 창조한 자연은 애초부터 질서와 조화 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리적이다. 그것을 성경은 '좋다'라고 했다(창세기 1장) 그래서 그 자연은 공정함과 균형감각을 갖고 있다.

세계 사람들은 모두가 세계시민(world citizenry)을 이루는 구성원이므로 집단적으로나 개별적으로 21세기에 잘 대비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생각할 때에는 윤

리체계와 공정감(sense of fairness) 그리고 균형감각(sence of proportion)을 갖출 필요가 있다(변도은, 430-431)고 했듯이 이러한 미적 가치체계는 세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제주 관광 개발은 대 원칙은 물질주의적 경제논리에서 탈피하고 진정한 인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옛날 아름다운 자연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를 초대해서 즐겼는데, 그러한 양식이 21세기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여기에 손님과 주인은 하나가 된다. 그것은 이념을 초월한 합일의 경지이다.

우리는 역사의 변혁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가치나 이상을 내세워 그 실현을 촉진시키는 것을 바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세계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도 그러한 바탕에서 건설되어야 한다. 프롬은 인류가 원하는 새로운 가치에 대해서 오래 전에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인류가 통합하려는 생각과 인류의 운명은 극복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품은 이래로, 인류의 사상과 이념은 모두 동일한 것이었다. 여러 문화의 중심지에서는 상호간에 아무런 영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통찰을 하고 있으며, 비슷한 이념이 설파되었었다.----우리들의 마음의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실성, 새로운 봉사정신이 필요한 것이다.” (프롬, 488) 세계사람들이 제주에 와서 그들의 뿌리를 그들의 심상의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될 수 있어야 제주는 국제적인 관광지가 된다.

<4장으로 결론을 대신함>

참 고 문 헌

- 강병기, 삶의 문화와 도시계획, 나남, 1993)
- E.Fromm/이규호, *Escape from Freedom/The Sane Society*(자유로부터 도
피/건전한 사회), 삼성출판사, 1982.
- 박삼욱, 대우학술총서논저.446, 현대경제지리학, 마르케, 1999.
- Samuel P. Huntington/이희재, *The Clash of Civilizations*(문명의 충돌),김녕
사, 1997.
- Theodore Zeldin, *An Intimate of Humanity*(인간의 내밀한 역사), 강, 1999.
371
- Paul Kennedy/변도은 이왈수, *Preparing for The Twenty-first Century*(21
세기준비),한국경제신문사,1993.
- 현길언, 제주문화론, 탐라목석원, 2001년.

이 논문은 2002년 11월 2일 투고 완료되어
2002년 11월 4일부터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2년 11월 30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